

유아교사의 행복감 및 교직에 대한 태도, 다문화교수변인이 다문화 교수활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Attitudes toward
the Teaching Profession and Multicultural Variables on Multicultural Teaching Activities

오재연¹ 남민우²

Oh, Jae-Yeon¹ Nam, Min-Woo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ifferences in multicultural early childhood teaching activitie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and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variables of attitudes toward the teaching profession, and variables of multicultural teaching, and ultimately to identify variables related to early childhood teachers that explain multicultural early childhood teaching activities. For this study, 270 teachers in charge of you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t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were sampled. When the 'age' variable, which might affect multicultural teaching activities, was excluded and the relationships among early childhood teachers' variables as independent variables were analyzed, happiness and obsessive passion were found to have an effect on multicultural teaching activit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and passion for teaching needs to be enhanced as an effort to set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fit for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here the foundation of culture is laid and prejudices are easily formed.

¹ 제1저자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² 교신저자

목원대학교 교수학습센터 교수
(e-mail: ecampus@mokwon.ac.kr)

|| **Key words** Happiness, Attitudes toward Teaching Profession, Multicultural Teaching, Multicultural Teaching Activities

I. 서론

행복감은 삶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삶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고, 부정적 정서인 우울이나 불안 등에 대한 감정을 조절하여 긍정화시키는 감정이므로(Hills & Argyle, 2002) 유아교육현장에서 하루 절반이상 유아의 일과를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사의 행복감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Seefeldt(2005)는 다문화교육을 교육현장에 제시할 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타

인에 대한 교사 자신의 감정과 태도 그리고 지식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우리와 다른 문화와 양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Banks & Kohn-Wood, 2007). 또한 Derman-Sparks(1989)는 교육현장에 있는 유아교사들이 다문화 교육실제에 있어서 유아교사의 역할의 중요정도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다문화 유아를 다루는 교사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유아교사는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보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감정인 행복감을 점검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자신의 심리적 변인이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에 앞서 자기 자신에 대한 행복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교사의 행복감 관련 연구에서 한 개인이 신분이나 물질적 풍요를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좌우될 수 있으며 행복 또한 결정된다고 보고하였다(김시연, 2014; 김혜원, 김명소, 2000). 유아교사의 행복감은 교사효능감 수준(곽희경, 2011), 교사의 직무만족도, 교사 역할 수행능력, 이직의도(이경애, 2010; Malmberg, 2006), 교사효능감과 상호작용 및 직무만족도(민재철, 2012; 박경, 2013; 장미정, 2011)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교사가 가지는 행복감 정도가 유아교육실제에서 유아의 성장·발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교사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행복감’변인을 중심으로 다문화 교수활동과 관련된 변인으로 교직에 대한 태도변인인 교직에 대한 열정과 교사동기, 다문화교수변인인 다문화신념과 다문화효능감을 살펴보았다.

유아교육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들을 이해하는 일, 다문화가정 유아의 한국생활에서의 적응, 다문화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편견을 갖지 않는 다문화 개방성과 다문화사회의 사회적 갈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다문화 사회 진전에 대한 논의와 준비는 유아교육현장에서 출발되어야 하며(문성은, 2013, 재인용), 다문화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벗어나 하루일과 중 절반이상의 일과를 함께하는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닌 다문화적 관련변인과 다문화 유아교육실제와의 관계를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신이 속한 문화의 기초가 형성되고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한 편견을 갖기 쉬운 시기인 유아기는 하루 일과를 함께하는 교사에 의해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편견을 갖지 않는 자연스러운 다문화 교육실체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김영옥, 2008; 문성은, 2013; 박현경, 2011; 오재연, 2014).

교육을 수행하는 주체는 교사이므로 유아교육현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강한 교사동기와 유아를 사랑하는 열정이 필요하다(Day, 2004). 유아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강한 동기와 유아를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가짐과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은 현장에서 유아교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기본요소(김현진, 2012, 재인용)이며, 유아교사는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 어떤 직업보다 가르치는 일에 대한 열정과 교사동기가 요구된다(김현진, 2012)볼 수 있겠다. 이에 유아교육현장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실천을 위해 사용되는 내적열정, 내·외적 조화로운 열정, 집착적인 열정(김현진, 2012, 재인용)과 지적자극, 아이들과의 교류, 자아평가, 애타주의, 교직의 성격의 교사동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직에 대한 열정과 교사동기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사배출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

올리고 있다. 유아교사의 교사동기와 열정은 다문화 교실상황에서 일반가정의 아동들과 다문화 가정 유아들이 어떻게 문화적 통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갖게 하며(김미진, 2010; 김현영, 2012), 유아들 간 다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안내해주는 교사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동기와 열정에 대한 교사변인을 다문화 교수활동과 관련된 교사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교육을 수행하는 주체는 교사이므로 효율적인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문화라는 시대적·교육적 상황에서 유아교사들이 다문화에 대해 가지는 생각을 의미하는 다문화신념(박현경, 2011)과 유아교사가 다문화 유아교육 환경에서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다문화 관련 교수활동, 편견, 교수자료 등에 대한 교사의 자신감을 의미하는 다문화효능감(Guyton & Wesche, 2005)에 대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김혜자, 2009; 박현경, 2011)에 의하면 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인 기관유형, 학력, 경력, 다문화 경력, 학급유아수, 근무시간 변인에 따라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한 다문화 교육활동이 잘못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 신념과 실재를 존중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반면, 견주연, 하은실 그리고 정계숙(2012)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만 유아교사가 다문화교육을 수행하는 실체는 인식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다문화 교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사변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한다는 Bronfenbrenner(1992)의 생태학 이론과 유아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의 올바른 교수활동을 위해서는 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인 유아교육기관 유형, 교사의 학력, 경력, 연령 등에 따른 다문화 교육실체에 대한 점검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문성은, 2013; 박현경, 2011)는 연구를 기초로 유아교사의 다문화 교수활동과 관련되는 변인을 선정하였다.

다문화 유아교육현장에서 다문화 효능감과 관련하여 진행한 연구는 서울시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241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신념이 교육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해주는 교사의 다문화효능감과 유아교육실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다문화신념은 다문화효능감과 유아교육실체와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한 박현경(2011)의 연구와 충남,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질적조사와 양적조사를 병행하여 연구한 문성은(2013)의 연구가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 교수효능감이 다문화교육실체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다문화교육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변인으로 다문화신념과 다문화적 효능감(박현경, 2011),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 교수효능감(문성은, 2013), 다문화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효능감(김혜자, 2009)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 제반 교사관련변인들이 다문화교수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현진(2012)의 연구에서는 교직에 대한 열정 및 교사동기와 교사효능감 간에는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교직에 대한 열정을 가진 교사들은 높은 교사효능감을 사용함으로써 아동의 이해도와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였다(Day, 2004).

다문화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문화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교사의 일반적 배경인 기관유형, 학력, 경력, 다문화 경력, 학급유아수, 근무시간을 중심으로 다문화 유아교육실제를 살펴본 후(김혜자, 2009; 문성은, 2013; 박현경, 2011), 다문화 신념이나 효능감(박현경, 2011), 수용성(문성은, 2013) 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유아교사의 학력이 높고, 다문화 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신념이나 효능감이 높을수록 다문화 교육실제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문성은(2013)의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기본적인 자질은 교육받은 기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면서 일반적 배경 중 특히 학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박현경(2011)의 연구에서 학력 뿐만 아니라 교사경력, 담당학급 수, 다문화 교육관련 수업수강 경험 등이 다문화 교육실제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사관련변인 연구들에서는 교사의 일반적 변인 이외의 변인을 단일변인으로 다루어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다문화 교수활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교사가 다문화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는 유아교사가 지닌 가장 기본적인 정서적 변인이라고 볼 수 있는 ‘행복감’을 점검하고, 교사가 유아교육현장의 하루일과속에서 유아들과 함께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교직에 대한 태도 변인인 교직에 대한 열정이나 동기, 마지막으로 다문화 유아교육실제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문화 교수변인인 다문화적 신념이나 효능감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교수활동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변인선정을 위해 행복감 변인이 교사의 정서적 변인을 다루면서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 유아교사의 행복관련 선행연구(이순미, 2014; 최윤정, 이경민, 2012; Lyubomirsky, King, & Diener, 2005)와 유아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친 유아교사의 교직에 대한 태도 변인(김시연, 2014; 김현진, 2012; 김혜리, 2014; 박보라, 2014) 및 다문화관련 연구에서 영향을 미쳤던 변인(김혜자, 2009; 박현경, 2011; 이윤정, 2011)들을 고려하여 변인을 선정하였다. 상기의 연구목적에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교사의 일반적 배경(유아교육기관 유형, 교사연령, 교사학력, 다문화교육경력, 원아 수, 근무시간)에 따라 다문화 교수활동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다문화 교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사의 행복감, 교직에 대한 태도, 다문화 교수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여성가족부 ‘다누리’ 홈페이지에 서비스 되어있는 언어 국적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현황」을 중심으로 다문화 국적을 선정하고,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서 「지역별 다문

화 혼인」, 「지역별 다문화 출생」에 대한 2008-2014년 통계자료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곳 이상인 서울, 경기, 전남, 경북지역에서 여성가족부 ‘다누리’ 홈페이지에 서비스 되어있는 국가 러시아, 베트남, 몽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6개 국적이 포함되도록 1차적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과 국적 중 지역별 다문화 혼인비율과 지역별 다문화 출생 비율이 높은 지역 서울, 경기, 전남을 2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의 지역 내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유아교사 300명을 임의표집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300부 중 283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설문문항이 체크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3부를 제외하고 27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유아교육기관유형, 연령학력, 다문화교육경력, 학급 원아 수, 근무시간, 월 평균급여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대상 소속 기관유형은 연구대상 선정 시 유치원교사 150명, 어린이집 교사 150명을 선정하였으나 응답이 누락된 설문의 경우를 제외한 후 어린이집 교사가 136(50.3%), 유치원 교사 134(49.6%)로 나타났다. 교사연령은 26-30세(32.6)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5세 이하(21.1%), 31-35세(15.6%), 36-40세(14.4%), 41-44세와 46세 이상이 각각 22명(8.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다문화가정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의 일반적인 특징 (n=270)

구분		n(%)	구분		n(%)
기관유형	유치원	134(49.6)	원아 수	15명 이하	85(31.5)
	어린이집	136(50.3)		16-20명	93(34.4)
	합 계	270(100.0)		21-25명	60(22.2)
교사연령	25세 이하	57(21.1)		26명 이상	32(11.9)
	26-30세	88(32.6)		합 계	270(100.0)
	31-35세	42(15.6)	근무시간	8시간 미만	23(8.5)
	36-40세	39(14.4)		8-10시간	90(33.3)
	41-45세	22(8.1)		10-12시간	137(50.7)
	46세 이상	22(8.1)		12시간 이상	20(7.4)
합 계	270(100.0)	합 계		270(100.0)	
교사학력	보육교사교육원졸업	15(5.6)	월 평균 급여	120만원 미만	9(3.3)
	3년제 대학 졸업	129(47.8)		120-139만원	26(9.6)
	4년제 대학 졸업	110(40.7)		140-159만원	67(24.8)
	대학원 졸업 이상	16(5.9)		160-179만원	78(28.9)
	합 계	270(100.0)		180-199만원	60(22.2)
다문화 교육경력	1년 미만	31(11.5)		200만원 이상	30(11.1)
	1-3년	64(23.7)		합 계	270(100.0)
	4-6년	58(21.5)			
	7-9년	42(15.6)			
	10년 이상	75(27.8)			
합 계	270(100.0)				

유아교사의 학력은 3년제 대학졸업 교사가 129명(47.8%)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 대학 졸업교사가 110명(40.7%), 대학원 졸업이상교사가 16명(5.9%), 보육교사교육원 졸업교사가 15명(5.6%) 순으로 나타났고, 다문화교육경력의 분포는 10년 이상의 경력교사가 75명(27.8%), 1-3년 경력이 64명(23.7명), 4-6년 경력이 58명(21.5%), 7-9년 경력이 42명(15.6%), 1년 미만의 경력교사가 31명(11.5%)로 나타났다. 유아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원아 수 분포는 16명 이하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수가 178명(65.9%)로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었으며, 21명 이상의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수도 92명(34.1%)로 조사되었다. 교사의 근무시간의 분포는 10-12시간의 경우가 137명(50.7%)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8-10시간 90명(33.3%), 8시간 미만이 23명(8.5%), 12시간 이상이 20명(7.4%)순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급여는 160-179만원이 78명(28.9%), 140-159만원이 67명(24.8%), 180-199만원이 60명(22.2%), 200만원 이상이 30명(11.1%), 120-139만원이 26명(9.6%), 120만원 미만이 9명(3.3%)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술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20명 이하의 사례로 조사된 교사연령, 최종학력, 다문화교육경력, 원아 수, 월평균급여 변인을 재범주화 하여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유아교사의 다문화 교수활동 측정도구와 다문화 교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사의 행복감, 교직에 대한 태도변인인 교직에 대한 열정과 교사동기, 다문화교수변인인 다문화신념과 다문화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구성하였다.

1) 다문화 교수활동

다문화 교수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문성은(2013)의 ‘다문화 교육실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유아교육의 목적을 논의한 연구들을 근거로 김혜자(2009)에 개발되었으며, 문성은(2013)은 김혜자(2009)의 유아 다문화 유아교육실제 척도 34문항을 ‘5세 누리과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37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시행된 ‘3-5세 누리과정’을 고려하고, 단어중심의 각 문항을 문장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에서는 「수업에서 실시하는 다문화 교육내용」에 대해 ‘인종’, ‘언어’, ‘종교’ 등 각 항목의 사용 정도를 체크하도록 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종’에 대해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수업을 전개할 때 다문화 교육내용 중 ‘인종’에 대해 다루는 정도는?’의 문장으로 사용하였다.

다문화 교육실제는 다른 집단의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문성은, 2013,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수활동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척도 하위요인은 선행연구(김혜자, 2009; 문성은, 2013)에서 사용된 문항 내용을 그대로 하고, 현행 ‘3-5세 누리과정’에 의해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하루일과 활동들을 고려하여 다문화교육 영역 9문항(인종, 언어, 종교, 계층, 성, 장애, 외모, 연령, 가족구성), 다문화교육 주제 6문항(다양성과 공통성, 비판견, 협력, 친밀감 및 관심, 상호존중, 갈등 문제해결), 다문화교육 교재교구 8문항(사진·그림, 도서, 놀잇감, 생활

용품, 예술품, 지역사회의 인적자원, 컴퓨터 등의 멀티미디어, 견학), 다문화 교육활동전개 14문항(등원, 자유선택활동, 쌓기·역할활동, 언어활동, 수조작활동, 과학활동, 동화·동시·동극활동, 음악·신체·게임활동, 미술·요리활동, 바깥놀이 활동, 방과후 활동, 간식 및 급식활동, 정리정돈활동, 평가 및 귀가지도 활동), 총 3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평가방법은 5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자주 다룬다’ 5점, ‘자주 다룬다’ 4점, ‘보통 다룬다’ 3점, ‘거의 다루지 않는다’ 2점, ‘전혀 다루지 않는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교수활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문화 교수활동 총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며, 다문화교육 영역 .88, 다문화교육 주제 .85, 다문화교육 교재교구 .92, 다문화 교육활동전개 .94로 나타났다.

2) 유아교사의 행복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행복감 정도를 검사하기 위해 선행연구(곽희경, 2011, 김시연, 2014, 최요원, 2002)에서 사용된 행복감 척도 29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Hills와 Argyle(2002)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최요원(2002)에 의해 번안되어 곽희경(2011), 김시연(2014)에서 사용되었다. 행복감은 삶의 행복 척도에 근거하여 개인적인 삶과 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행복과 건강, 가족관계, 대인관계, 성취, 영성, 경제행복의 총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최윤정, 2009; 김혜리, 2014, 재인용). 유아교사의 행복감은 긍정적 정서에 대한 빈도와 강도, 높은 삶의 만족도 정도를 측정하는 17문항의 긍정문항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우울이나 불안 느낌 정도를 측정하는 12문항의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내용은 6단계 평정 척도에 따라 ‘매우 동의함’ 6점, ‘다소 동의함’ 5점, ‘약간 동의함’ 4점, ‘약간 동의하지 않음’ 3점, ‘다소 동의하지 않음’ 2점, ‘매우 동의하지 않음’ 1점에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선행연구들(곽희경, 2011, 김시연, 2014, 최요원, 2002)과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여 5단계 평정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부정의 문항은 역채점하여 긍정화하였으며 행복감 정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행복감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3) 교직에 대한 태도변인

(1) 교직에 대한 열정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교직에 대한 열정을 알아보기 위해 ‘열정 척도’를 개발한 Vallerand 등(2003)의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한 김현진(2012)의 ‘예비교사의 교직에 대한 열정’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현진(2012)의 문항내용 중 예비교사를 유아교사로 수정하였으며, 2013년부터 시행된 ‘3-5세 누리과정’을 고려하여 ‘교과과정, 교직과정, 교직이수’ 등의 용어를 ‘3-5세 누리과정’ 관련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예비교사로서 준비하는 교직과정은 나에게 중요하다.’를 ‘유아교사로서 준비하는 3-5세 누리과정은 나에게 중요하다.’의 문장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교직에 대한 열정은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의 열의정도를 말하며, 문항구성은 교육과정 실천에 따른 내적열정 정도와 관련된 ‘열정’ 4문항, 교육과정 실천에 따른 내·외적 열정정도와 관련된 ‘조화로운 열정’ 6문항, 교육과정

실천에 따른 집착열정 정도와 관련된 ‘집착적인 열정’ 6문항,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내용은 5단계 평정 척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표시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별 열정이 높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결과, ‘교육과정 실천에 따른 집착열정 정도를 나타내는 ‘집착적인 열정’의 문항 중 김현진(2012)에서 제시한 11번 ‘교직과정 이수가 다소 어려움’, 12번 ‘지나치게 얽매어 있는 느낌’, 16번 ‘현재 신분이 나를 가득 채운다고 느낌’의 3문항 문항은 응답하는데 있어서 애매모호한 해석과 이해가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열정’ 4문항, ‘조화로운 열정’ 6문항, ‘집착적인 열정’ 3문항, 총 13문항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통해 분석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 .90, 열정 .80, 조화로운 열정 .90, 집착적인 열정 .78로 나타났다.

(2) 교사동기

유아교사의 교사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Sinclair, Dowson 그리고 Dowson(2008)에 의해 개발된 교사동기 측정도구(Modified Orientations to Teach Survey: MOTS)를 번안하여 사용한 김현진(2012)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교사동기는 유아교사가 교육활동을 전개하면서 느끼는 내재·외적 소명의식을 말하며, 하위요인 구성은 내재적 동기에 해당하는 ‘지적자극’ 5문항, ‘아이들과의 교류’ 4문항, ‘자아평가’ 5문항, 다른 이를 돕기 위한 ‘에타주의’ 4문항과 외적 동기인 ‘교직의 성격’ 5문항, 총 5개요인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내용은 5단계 평정 척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표시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별 교사동기가 높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3-5세 누리과정’에 근거하여 제시된 특정 교과목이나 영역(국어, 미술, 언어, 수, 음악)의 내용을 ‘3-5세 누리과정 5개영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특정교과목이나 영역을 좋아한다.’의 문장을 ‘특정 영역(신체 및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을 좋아한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지적자극’ 5문항, ‘아이들과의 교류’ 4문항, ‘자아평가’ 5문항, ‘에타주의’ 4문항, ‘교직(일)의 성격’ 5문항, 총 5개요인 2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통해 분석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 .89, 지적자극 .80, 아이들과 활동 .70, 자아평가 .74, 에타주의 정신 .70, 일의 성격 .77로 나타났다.

4) 다문화교수변인

(1) 교사의 다문화신념

유아교사의 다문화 교육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성영화(2010)가 개발한 ‘유아교사의 다문화 교육 신념 척도’를 박현경(2011)이 사용한 총 6요인 32문항을 사용하였다. 다문화 교육신념이란, 다문화 유아교육현장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정도를 말하며, 다문화 교육신념 하위요인은 다문화 교육상황에서 다문화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과 다문화 환경이 유아교사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이해하는 신념 정도인 ‘다문화 이해’ 7문항, 다문화 상황에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개인적 신념의 내용인 ‘다문화 민감성’ 3문항, 다문화 상황을 고려한 유아교육과정 운영 및 구성에 대한 신념 정도인 ‘다문화 교육과정’

10문항, 다문화 교육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떠한 일과운영, 환경구성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념인 ‘다문화 교실운영’ 3문항, 다문화 교수 실제를 위해 구성원들과의 관계형성 및 분위기 조성 방법에 대한 개인적 신념 수준인 ‘다문화 기관풍토’ 5문항,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부모가 서로 협력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개인적 신념인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부모파트너십’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내용은 5단계 평정 척도에 따라 ‘매우 중요하다’ 5점, ‘중요하다’ 4점, ‘보통이다’ 3점, ‘중요하지 않다’ 2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 표시하도록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교육에 대한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증을 통해 분석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 .96, 다문화 이해 .88, 다문화 민감성 .78, 다문화 교육과정 .89, 다문화 교실운영 .71, 다문화 기관풍토 .85,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부모파트너십 .90으로 나타났다.

(2) 교사의 다문화효능감

다문화 교육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작성하여 사용한 이윤정(2011)의 ‘다문화 교육 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Guyton과 Wesche(2005)가 개발한 다문화효능감 척도(Multiculture Efficacy Scale: MES)를 최충욱과 모경환(2007)이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이후 이윤정(2011)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국가지원내용을 기초로 각 문항의 내용을 점검하고 수정·보완하였다. 다문화 교수효능감은 다문화적 상황에서 유아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하는 것으로(문성은, 2013) 총 3가지 하위요인, 총 14문항으로 유아들이 가정이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활하면서 겪게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대처하고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대처를 하는가와 관련한 ‘일반생활 측면’ 5문항, 유아교사가 다문화 교육 현장에서 다루게 되는 다문화 활동에 있어서 환경조성 및 분위기에 따라 적절한 교수방법과 교재교구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수업기능 측면’ 5문항, 다양한 집단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 상호 존중의 마음 함양과 관련된 ‘인간관계 측면’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에 따라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교육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검증을 통해 분석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 .88, 일반생활 측면 .81, 수업기능 측면 .70, 인간관계 측면 .71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유아교사의 다문화 교수활동 측정 도구와 다문화 교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사 변인인 교사의 행복감, 교직에 대한 태도, 다문화교수변인의 측정도구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유아교육전공 교수 3인과 다문화가정 유아를 담당한 교사 경력 2년 이상인 교사에게 타당화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예비조사와 타당화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다문화 교수활동, 교사의 행복감, 교직에 대한 열정, 교사동기, 다문화신념과 다문화효능감 척도들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또한 ‘3-5세 누리과정’을 고려하기 위해 수정된 다문화 유아교육실제 도

구와 교직에 대한 열정, 교사동기도구는 예비조사와 신뢰도 검증을 통해 부합하지 않은 문항을 검토하여 응답에 어려움이 없고 이해하기 쉬운 문항으로 수정한 후 유아교육현장전문가와 유아교육전공 교수 2인의 면담과정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예를 들면, ‘교직과정’의 용어를 ‘수업준비과정이나 교수활동’으로 수정하여 유아교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으며, 교사동기 검사도구의 문항 중 주어와 동사가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의 상황제시 문장을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여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라는 문장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행복감변인, 교직에 대한 태도변인, 다문화교수변인 도구의 문항점검을 위한 유아교사와의 면담 및 유아교육전문가의 면담은 2014년 11월에 실시하였다. 면담 실시 전 전화로 본 연구의 내용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학기 초를 고려하여 2015년 3월 16일~20일 본 연구의 연구대상 10%로에 해당하는 유아교사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교사들이 설문 문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문항들을 최종 척도로 확정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다문화가정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다문화 교수활동 차이 및 다문화 교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사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PASW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들에 따라 다문화 교수활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고,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하위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둘째, 다문화 교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 교수활동에 차이를 보인 유아교사의 배경변인을 통제하고 유아교사의 행복감변인, 교직에 대한 태도변인, 다문화교수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다문화 교수활동의 차이

다문화가정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다문화 교수활동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때, 유아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다문화 교수활동의 전체를 파악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다문화 실제란 유아교사가 다문화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다문화교육 영역, 다문화교육 주제, 다문화교육 교재교구, 다문화 교육활동전개를 모두 포함한 교육의 영역을 뜻하므로 다문화 교수활동의 전반적인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2〉 다문화가정 유아를 담당하는 유아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다문화 교수활동 ($n=270$)

변인	구분	<i>n</i> (사례수)	<i>M</i> (평균)	<i>SD</i> (표준편차)	<i>t/F</i>	<i>p</i> (Scheffé)
유아교육 기관 유형	유치원	134	3.51	.60	1.72	.09
	어린이집	136	3.39	.54		
	합 계	270	3.45	.57		
교사연령	30세 이하(a)	145	3.44	.57	4.15	.017* b < c
	31-40세(b)	81	3.35	.60		
	41세 이상(c)	44	3.66	.51		
	합 계	270	3.45	.57		
교사학력	2-3년제 대학 졸업이하	144	3.45	.55	.07	.94
	4년제 대학졸업 이상	126	3.45	.61		
	합 계	270	3.45	.58		
다문화 교육경력	3년 미만	95	3.38	.54	2.81	.06
	3-9년	120	3.43	.59		
	10년 이상	55	3.60	.57		
	합 계	270	3.45	.57		
원아 수	15명 이하	85	3.40	.54	2.01	.14
	16-20명	93	3.40	.57		
	21명 이상	92	3.55	.61		
	합 계	270	3.45	.57		
근무시간	10시간 미만	113	3.50	.54	1.35	.18
	10시간 이상	157	3.41	.59		
	합 계	270	3.46	.57		

* $p < .05$.

다문화가정 유아를 담당하는 유아교사의 배경변인인 유아교육기관 유형, 교사연령, 교사학력, 다문화교육경력, 담당학급의 유아 수, 근무시간에 따른 다문화 교수활동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41세 이상의 연령($M = 3.66, SD = .51$), 31-40세 연령($M = 3.35, SD = .60$)의 차이가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F = 4.15, p < .05$), 나머지 변인인 유아교육기관 유형, 교사학력, 다문화교육경력, 담당학급의 유아 수, 근무시간 변인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 = 1.72, p > .05$; $t = .07, p > .05$; $F = 2.81, p > .05$; $F = 2.01, p > .05$; $t = 1.35, p > .05$).

2. 다문화 교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사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다문화 교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사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연구문제 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유아교사의 ‘연령’변인을 가변수(dummy variable)화 하여 통제하고

유아교사의 체계변인들 중 적절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인(Rea & Parker, 2005)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변인을 통제한 이유는 유아교사의 배경변인 중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연령’변인이 다문화 교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령변인을 통제하여 다문화 교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육 관련변인인 행복감변인, 교직에 대한 태도변인, 다문화교수변인을 분석하였다. 1차적 다중공선성 점검을 위해 유아교사의 행복감변인, 교직에 대한 태도변인인 교직에 대한 열정과 교사동기의 하위변인, 다문화교수변인 다문화신념과 다문화교수효능감 하위변인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은 각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제시하였으며, 회귀분석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변수들 사이의 상관은 낮아야 하므로(성태제, 2011) .60이상의 높은 상관인 변인 즉, 동질성의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60이상의 상관계수(성태제, 2011; 유현정, 2004; Rea & Parker, 2005)의 변인을 제외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유아교사의 행복감, 교직에 대한 태도, 다문화교수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n = 27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1.00																		
(2)	.42***	1.00																	
(3)	.43***	.76***	1.00																
(4)	.16	.30***	.37***	1.00															
(5)	.53***	.51***	.43***	.09	1.00														
(6)	.44***	.44***	.42***	.14*	.54***	1.00													
(7)	.32***	.35***	.35***	.19**	.43***	.48***	1.00												
(8)	.32***	.35***	.29***	.16**	.46***	.33***	.60***	1.00											
(9)	.24***	.26***	.25***	.05	.31***	.33***	.51***	.57***	1.00										
(10)	.47***	.46***	.43***	.10	.54***	.41***	.30***	.27***	.24***	1.00									
(11)	.46***	.43***	.38***	.08	.57***	.41***	.31***	.30***	.26***	.78***	1.00								
(12)	.49***	.47**	.45***	.10	.57***	.44***	.30***	.29***	.27***	.84***	.77***	1.00							
(13)	.38***	.34***	.31***	.05	.50***	.34***	.28***	.27***	.27***	.64***	.64***	.70***	1.00						
(14)	.46***	.38***	.34***	.04	.51***	.40***	.25***	.27***	.22***	.72***	.72***	.80***	.70***	1.00					
(15)	.39***	.40***	.37***	.08	.46***	.34***	.22***	.26***	.17**	.61***	.59***	.66***	.59***	.72***	1.00				
(16)	.34***	.40***	.33***	.09	.53***	.39***	.31***	.34***	.25***	.45***	.48***	.44***	.41***	.44***	.38***	1.00			
(17)	.38***	.48***	.40***	.18**	.56***	.37***	.27***	.27***	.24***	.47***	.51***	.46***	.45***	.46***	.44***	.63***	1.00		
(18)	.42***	.45***	.39***	.06	.59***	.45***	.26***	.30***	.18**	.55***	.54***	.55***	.49***	.55***	.48***	.64***	.62***	1.00	

*p < .05, **p < .01, ***p < .001.

주. (1)행복감, (2)열정, (3)조화로운 열정, (4)집착적인 열정, (5)지적자극, (6)아이들과의 교류, (7)자아평가, (8)에타주의, (9)교직(일)의 성격, (10)다문화이해, (11)다문화 민감성, (12)다문화교육과정, (13)다문화 교실운영, (14)다문화 기관풍토, (15)지역사회, 기관, 부모 파트너십, (16)일반생활측면, (17)수업기능측면, (18)인간관계 측면

체계변인별로 살펴보면, 교직에 대한 태도변인의 열정변인과 집착적열정 변인, 다문화교수변인의 다문화 신념 하위변인 중 다문화이해, 다문화 민감성, 다문화교육과정, 다문화 교실운영, 다문화 기관풍토 변인, 다문화효능감 하위변인 중 일반생활측면, 수업기능측면 변인 간 .60이상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이 변인들을 제외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에서 변인 간 .60이상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인을 제외한 유아교사의 ‘행복감’변인, 교직에 대한 태도변인의 교직에 대한 열정 중 ‘조화로운열정, 집착적인열정’, 교사동기 중 ‘지적자극, 아이들과의 교류, 자아평가, 애타주의, 교직의 성격’, 다문화교수변인의 다문화신념 중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부모파트너십’, 다문화효능감 중 ‘인간관계측면’ 총 10개의 변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진단 과정으로 Durbin-Watson의 잔차 분석을 통한 잔차 간의 자기상관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계수가 1.83으로 나타나 잔차 간 자기상관이 없어 관측치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차한계는 .767-.885로 모두 1에 근접하고, VIF값이 1.130-2.282 값으로 나타나 10이상의 경우에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의 유아교사의 배경변인 중 유의하게 나온 연령변인을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에서 통제 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 2단계에서 적절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유아교사의 ‘행복감’변인, 교직에 대한 태도변인의 교직에 대한 열정 중 ‘조화로운열정, 집착적인열정’, 교사동기 중 ‘지적

<표 4> 다문화 교수활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독립변인	모형 I		모형 II		
	B	β	B	β	
일반적 배경변인	교사연령	.044	.119	-.020	-.053
유아교사의 행복감, 교직에 대한 태도, 다문화 교수변인	정서적변인	행복감		.860	.655***
	교직에 대한 열정	조화로운열정		-.021	-.022
		집착적인열정		.142	.165***
	교사동기	지적자극		.093	.096
		아이들과의 교류		.042	.051
		자아평가		.062	.072
		애타주의		-.014	-.019
		교직의 성격		-.036	-.047
	다문화신념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부모파트너십		-.041	-.045
	다문화효능감	인간관계측면		-.013	-.012
	R	.119	.740		
	R ²	.014	.547		
	R ² 증가량	.014	.533		
	F	3.822	28.334***		

*** $p < .001$.

자극, 아이들과의 교류, 자아평가, 애타주의, 교직의 성격', 다문화교수변인의 다문화신념 중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부모파트너십', 다문화효능감 중 '인간관계측면' 총 10개의 변인을 투입하였다.

<표 4>와 같이 통제변인인 교사연령만을 투입한 모형 1은 1.4%, 통제변인과 유아교사의 '행복감'변인, 교직에 대한 태도변인의 교직에 대한 열정 중 '조화로운열정, 집착적인열정', 교사동기 중 '지적자극, 아이들과의 교류, 자아평가, 애타주의, 교직의 성격', 다문화교수변인의 다문화신념 중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부모파트너십', 다문화효능감 중 '인간관계측면' 까지 투입한 모형 2는 54.7%의 영향력을 보였다. 회귀분석 1단계의 경우 통제변인인 교사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보이지 않은 반면, 회귀분석 2단계에서 추가로 투입된 행복감변인, 조화로운열정, 집착적인열정, 지적자극, 아이들과의 교류, 자아평가, 애타주의, 교직의 성격,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부모파트너십, 인간관계측면의 독립변인들 중에 유아교사의 '행복감' 변인과 '집착적열정'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다문화 교수활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유아교사의 '행복감', 교직에 대한 열정인 '집착적열정' 변인 총 2개 변인이 추출되었다. 이는 유아교사가 행복감이 높을 때 유아교육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의 영역, 주제, 교재교구, 활동 등의 다문화 교수활동에 잘 적응하고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실천에 따른 집착적 열정 정도가 높을수록 유아교육현장에서 다문화교육의 영역, 주제, 교재교구, 활동 등의 다문화 교수활동에 잘 적응하고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사의 관련변인을 선행연구를 기초로 유아교사의 행복감, 교직에 대한 태도, 다문화교수변인으로 구분하여 다문화 교수활동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연구목적에 두고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27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유아를 담당하는 유아교사의 배경변인인 유아교육기관 유형, 교사연령, 교사학력, 다문화교육경력, 담당학급의 유아 수, 근무시간에 따른 다문화 교수활동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본 연구결과에서는 교사연령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사연령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사의 연령이 많을수록 연령이 적은 유아교사보다 다문화 유아교육실체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의 정도가 높고 이러한 경험을 반영하여 실체를 다루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는 유아교사의 다문화수용성이 다문화교육실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충남,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30세 이하의 교사와 31세 이상의 연령인 교사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문성은(2013)의 연구와 예비유아교사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신념과 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보육교사교육원의 예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문화 교실운영’에 있어서 20대, 30대, 40대 이상의 집단에서 차이가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이윤정, 2011)를 지지 한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 유아교사의 배경변인 중 유아교육기관 유형 변인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기관을 두 집단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다문화교수활동을 조사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한 박현경(201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사학력과 다문화교육경력에 대한 결과에서 차이가 없는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사의 일반적배경과 다문화교육 실제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를 병행하여 조사한 문성은(2013)의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문성은(2013)의 연구에서는 4년 이하, 5-13년, 14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4년제 학사 미만과 4년제 학사 이상의 교사학력과 30세 이하와 30세 이상의 교사연령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교사의 학력 등의 기본적인 자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학력과 연령, 경력에 따른 다문화 교수활동에 대한 차이는 학력이나 연령, 다문화 경력이 많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이해력과 흡수정도가 빨라 교육목표에 대한 중요성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유아들에게 자연스럽게 다문화를 전달하는 능력도 있음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담당학급의 유아 수나 근무시간 변인에 따라 다문화 교수활동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 다문화에 대한 경험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학력이나 경력 그리고 연령 등이 유아교육현장의 다문화 상황이나 교수환경에 영향을 더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유아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다문화 교수활동의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의 유아를 담당하는 유아교사의 다문화교수활동 하기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다문화 교수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유아교사의 배경변인들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김혜자, 2009; 문성은, 2013; 박현경, 2011), 다문화 교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사의 배경변인을 파악하는 일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가정 유아가 증가하고 있지만, 유아교사들이 교실의 다문화 상황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태도나 기술이 미흡한 실정(박미경, 2007; 박현경, 2011)이기 때문에 다문화 교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사의 배경변인을 파악하는 일은 다문화 교수활동에서 지식, 태도,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다문화 유아교육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사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유아교사의 관련변인을 행복감변인, 교직에 대한 태도변인, 다문화교수변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변인을 선정하였으며,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다문화 유아교육실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유아교사관련변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직에 대한 태도변인과 다문화교수변인의 하위변인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제외한 ‘행복감’변인, ‘조화로운열정, 집착적인열정’, ‘지적자극, 아이들과의 교류, 자아평가, 애타주의, 교직의 성격’, ‘지역사회, 기관 그리고 부모파트너십’, ‘인간관계측면’ 총 10개의 변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아교사의 행복감변인과 교직에 대한 태도변인인 집착적 열정변인이 다문화 교수활동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교수변인의 다문화신념과 다문화효능감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가 높은 정도를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박현경(2011)의 연구에서도 서울시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241명을 대상으로 교사의 다문화효능감과 유아교육실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다문화신념과 다문화효능감이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고 보고한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겠다. 또한, 행복감 변인이 다문화 교수활동에 영향을 미친 결과는 유아교육현장에서 행복감을 연구한 선행연구들(곽희경, 2011; 김시연, 2014; 김은옥, 2013; 김혜리, 2014; 이경애, 2014; 이순미, 2014; 최윤정, 2009)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겠다.

유아교사가 지니고 있는 행복의 정도가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배성희(2009)의 연구, 유아교사의 자아정체감과 유아교사효능감,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유아교사의 행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한 곽희경(2011)의 연구,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유아교사의 행복감을 연구한 이경애(2010)의 연구, 유아교사의 행복감 관련 연구에서 한 개인이 어느정도의 신분이나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변화되고, 행복 또한 결정된다고 보고한 연구(김혜원, 김명소, 2000; 김혜리, 조형숙, 2013), 유아교사의 행복감은 교사효능감 수준(곽희경, 2011), 교사의 직무만족도, 교사 역할 수행능력, 이직의도(이경애, 2010), 교사효능감과 상호작용 및 직무만족도(민재철, 2012; 박경, 2013; 원지현, 2015; 장미정, 2011)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교사가 가지는 행복감 정도가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의 성장·발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다문화 교수활동에서도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유아교육실제의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유아교사의 행복정도가 교육적 효과를 좌우하는 주요변인으로 보고되어 왔기 때문에 다문화 교수활동에 있어서도 유아교사가 지닌 행복감 정도의 중요성을 부각하여 실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다문화 유아교육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사의 교직에 대한 태도 변인이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활용 이외에 자신에 대한 감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행복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유아교사의 행복감 변인 이외에 ‘교직에 대한 집착적인 열정’이 다문화 교수활동에 영향을 미친 결과는 예비 유아교사들의 교사동기와 교직에 대한 열정이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김현진(2012)의 연구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겠다. 김현진(2012)의 연구에서는 교직에 대한 열정은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참여시키고 교수전략 및 학급관리, 교사효능감을 예측하기 위한 주요변인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유아교사가 교수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과정 실천에 따른 교사의 열정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문화교수변인의 다문화신념과 다문화효능감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문화 교수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문화신념, 효능감, 수용성 변인이 다문화 유아교육실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김혜자, 2009; 문성은, 2013; 박현경, 2013)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하지만, 이들의 선행연구들은 유아교사의 변인 중 행복감 변인을 포함하지 않고 교사의 일반적 변인들만을 포함하여 비교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다문화신

념, 효능감, 수용성 변인이 다문화 교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모형 I에서 연구문제 1의 일반적 배경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령’ 변인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다문화 교수활동을 설명하는 다문화신념과 다문화효능감 변인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아교사의 행복감 변인의 중요성을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을 이끌기 위한 유아교사의 핵심적 변인으로 조사·연구된 선행연구들의 변인들을 고려한 후, 이를 유아교사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학적 맥락에 근거하여 교사의 긍정적 감정을 이끄는 ‘행복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교직에 대한 열정과 교사동기’인 교직에 대한 태도 측면과 ‘다문화신념과 다문화효능감’인 다문화교수 측면을 위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교수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을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결과 신념이나 효능감 등의 변인이 다문화교수활동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교사 신념이나 효능감 보다는 교사의 잠재되어 있는 행복감 정도와 교육과정의 실천에서 사용되는 집착적인 열정변인이 다문화 교수활동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나타난 바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열정’은 다문화 교수활동에 있어서 교육적 효과를 좌우하는 주요변인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문화의 기초가 형성되고 편견을 갖기 쉬운 유아교육현장에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방향 설정의 기본 조건으로 유아교사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교육과정에서의 열정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유아교사의 행복감 정도가 높고 교직에 대한 열정이 높으면 유아교사 자신만의 역량과 올바른 다문화신념을 형성하게 되고 나아가 유아교육현장에서 다문화교수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문화 교수활동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한정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유아교사들이 지닌 변인을 바탕으로 한 유아교실 내의 실제적인 다문화교육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문화유아를 다루는 교사들의 심도 있는 심층 면담 및 관찰을 포함하여 다문화교육의 실제 교수활동을 살펴보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곽희경 (2011). 유아교사의 행복감 및 자아정체감과 교사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견주연, 하은실, 정계숙 (2012). 유아 교실 내 다문화교육 수행에 대한 교사 인식 및 실제. **아동학회지**, 33(3), 177-197.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 김미진 (2010).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시연 (2014). 유아교사의 행복감, 교직에 대한 열정, 직무만족도, 교사효능감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 간의 구조분석.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옥 (2008). **유아 다문화교육의 통합적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은옥 (2013). 유아-교사의 행복감, 직무만족도와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영 (2012). 유아 이중언어 강사의 직무만족도와 다문화 교수효능감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 (2012). 예비 유아교사의 교직에 대한 열정, 교사동기 그리고 교사효능감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7(6), 249-275.
- 김혜리 (2014). 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리, 조형숙 (2013). 유아교사의 교사 효능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 31(4), 275-292.
- 김혜원, 김명소 (2000).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행복의 구조분석 및 주관적 안녕감과외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1), 27-41.
- 김혜자 (2009). 다문화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효능감 및 교육실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성은 (2013). 유아교사의 다문화수용성이 다문화교육실제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재철 (2012). 유아체육교사의 행복감과 자아정체감이 교사효능감과 상호작용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경 (2013).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효능감이 유아의 내·외현적 행동문제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미경 (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보라 (2014). 예비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초임교사의 교직에 대한 열정, 교사동기, 교사효능감에 관한 비교연구. 광주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경 (2011). 유아교사의 다문화 신념이 다문화적 효능감과 다문화 교육실제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 (2014). 등록외국인지역별현황.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199&strAnsNo=A&strFilePath=moj/&strRtmURL=MOJ_40402000&strOrgGbnCd=104000에서 2015년 2월 1일 인출
- 배성희 (2009). 보육교사의 행복이 교사의 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학연구**, 22, 25-44.
- 성영화 (2010). 유아교사의 다문화 신념 측정도구 개발 및 교사 관련변인 탐색.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태제 (2011). **SPSS/AMOS를 이용한 알기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 여성가족부 (2011). 다문화 콜센터. <http://www.liveinkorea.kr/intro.asp>에서 2015년 2월 4일 인출
- 오재연 (2013).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유아교육학론집**, 17(1), 137-162.
- 오재연 (2014). 유아기 자녀를 둔 출신국적별 외국인 부모의 양육행동과 삶의 질 및 문화적응스트레스 비교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1), 31-57.
- 원지현 (2015). 유아교사의 행복감 관련 변인 구조분석. 위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현정 (2004). 인구학적변인, 부모관련변인 및 또래동조성향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애 (2010). 유아교사의 행복과 직무관련변인의 관계분석-직무만족, 교사효능감, 역할수행능력, 이직의도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순미 (2014). 유아교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운정 (2011). 예비보육교사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신념과 효능감 간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정 (2011). 유치원의 질과 교사의 직무만족도, 효능감이 유아의 인지, 언어, 정서 및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요원 (2002). 정서인식이 행복경험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충욱, 모경환 (2007). 경기도 초,중등 교사들의 다문화적 효능감에 대한 조사 연구. **시민교육연구**, 39(4), 163-182.
- 최윤정 (2009). 유아교사의 행복증진 프로그램 개발연구: Seligman의 강점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윤정, 이경민 (2012). 유아교사의 행복교육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강점개발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2(1), 395-416.
- Banks, K. H., & Kohn-Wood, L. P. (2007). The influence of racial identity profil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acial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Black Psychology*, 33(3), 331-354.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인간발달 생태학(이영역). 서울: 교육과학사(1995).
- Day, C. (2004). *A passion for teaching*. London: Routledge Falmer.
- Derman-Sparks, L., & A.B.C. Task Force. (1989). *Anti-Bias Curriculum: 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Washington DC: NAEYC.
- Guyton, E. E. & Wesche, M. V. (2005). The multicultural efficacy scale: Development, item selection, and reliability. *Multicultural Perspective*, 7(4), 21-29.
- Hills, P., & Argyle, M. (2002).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A compact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3(7), 1073-1082.

- Lyubomirsky, S., King, L. A.,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6), 803-851.
- Malmberg, L. E. (2006). Goal-orientation and teacher motivation among teacher applicants and student teacher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2(1), 58-76.
- Rea, L. M., & Parker, R. A. (2005). *Designing & Conducting Survey Research A Comprehensive Guide* (3rd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eefeldt, C. (2005). *Social studies for the preschool-primary child*. New Jersey: Pearson Merrill Prentice Hall.
- Sinclair, C., Dowson, M., & Thistleton-Martin, J. (2006). Motivations and profiles of cooperating teachers: Who volunteering and why?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2(3), 263-279.
- Vallerand, J., Blanchard, C., Mageau, A., Koestner, R., Ratella, F., Leonard, M., et al. (2003). Les passion de l'ame: on obsessive and harmonious pa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4), 756-767.

논문투고 : 16.04.05
수정원고접수 : 16.05.16
최종게재결정 : 16.06.03